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2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제 29호)

e-날씨 뉴스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2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 (제29호)

목차



기상청장 기고

- 05 / 여름 태풍보다 무서운 가을 태풍
- 07 / 기상과 기후를 오감으로 즐기는 기상과학관
- 09 / 운전자를 지켜줄 또 하나의 안전벨트! 도로기상관측망

대전지방기상청장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

- 11 / 달라진 기후, 기상정보는 더 가까이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3 /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2 / 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4 / 1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42 / 2022년도 가을철 계절관측
- 43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45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46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2년 11월 30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영연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이은영(기획운영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윤영란(예보과), 허자윤(관측과), 정영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효원(예보과), 남민우(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진주(예보과), 박형진(예보과), 서유미(기후서비스과), 신아영(관측과), 심준수(관측과), 안태건(관측과)

이상진(예보과), 이경섭(관측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임영묵(기후서비스과), 장민준(예보과)

조현겸(관측과), 최유미(관측과), 허자윤(관측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남씨유,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기상청장 기고문 #1

여름 태풍보다 무서운 가을 태풍

해수면 온도
9월 초에 정점, 태풍 형성에
유리한 조건 완성

옛말에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피한다.’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 오는 비는 양이 적어 빗자루로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을은 비가 오더라도 그 양이 많지 않아 수해 걱정이 없는 수확의 계절이다. 그러나 맑은 날씨를 자랑하는 가을에도 태풍이 몰아치고, 심지어 여름철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온다면 믿어지겠는가? 여름이 지나가도 기상청 직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을 태풍이다.

적도에는 태양열이 넘쳐나고, 극지방에는 모자란다.

하지만 적도라 하여 마냥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극지방이라고 계속해서 추워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의 공기나 바닷물이 저위도 지방의 남는 열을 극지방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매우 느려서 이따금 적도지방의 열을 빠르게 극지방으로 보내주는 특급열차가 필요하다. 이 특급열차를 태풍이라고 한다. 태풍(颶風, typhoon)의 정의는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열대저기압 모두를 태풍이라고 부르고 있다.

태풍은 평년(1991~2020년) 25.1개 발생하고, 3.4개의 태풍이 6~10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이 중 가을 태풍은 평년 0.9개였으며 거의 매해 꾸준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강력한 태풍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태풍이 발생하고 강화되려면 해수면 온도가 높아야 하는데, 해수면 온도는 7, 8월보다는 9월 초에 정점을 찍어 태풍 형성에 유리한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으로 인해 태풍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들어올 통로가 만들어진다. 태풍이 고온의 해수면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받으며 성장하여 우리나라로 접근하게 되면, 태풍이 몰고 올라오는 무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강력한 대기 불안정으로 거센 바람과 폭우를 뿌릴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 쌀, 과일 등 여러 농작물의 수확을 앞둔 시기에 도복(쓰러짐),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을 태풍은 2003년에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이다.

매미는 9월 6일에 발생해 14일에 소멸한 태풍으로, 9월 11일 20시 남해안에 상륙한 후, 13일 3시 무렵에 경북 내륙을 거쳐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매미는 50~300mm, 많은 곳에는 450mm가 넘는 비를 내렸으며 최대 순간풍속은 60.0m/s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피해 규모는 인명피해 130명, 재산피해액 4조 2천억 원으로, 매미는 2002년 태풍 '루사' 다음으로 우리나라 역대 재산피해 규모 2위를 기록한 태풍이 되었다.

더구나 매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시기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으로, 그 영향과 피해는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처럼 가을 태풍은 강풍과 많은 강수를 동반하여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기에 기상청은 여름철 태풍, 장마 등의 위험 기상을 넘기고도 안심할 수 없다.

또한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이동속도가 빠르고, 지난 30년간 평균 0.9개였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가을 태풍의 숫자는 최근 10년 평균으로 보면 1.2개로 늘어나,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에 기상청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열대저압부 단계에서부터 태풍이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거나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동상황, 강도, 최대풍속 및 반경 등 모든 정보를 감시·분석하여 태풍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태풍 정보를 계속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72시간 이내 한반도 영향이 예상될 때는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태풍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태풍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 태풍의 발생이나 진로를 제어할 수는 없다. 철저한 대비만이 태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태풍 정보를 제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상청장 기고문 #2 기상과 기후를 오감으로 즐기는 기상과학관

날씨와 기후는
현재의 풍요로운 생활과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야 확실하고 풍부한 지식이 된다는 말이다. 이 고사성어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되지만, 날씨와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각 계절의 맛과 멋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계절의 구분이 명확하기에 여름철에는 태풍을 비롯하여 호우와 폭염이, 겨울철에는 한파와 대설이 한반도 곳곳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위험한 기상현상들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언론보도 및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위력과 위험성은 누구도 직접 겪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살게 된 우리의 미래 모습이다. 앞으로의 기후 전망정보를 알려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미래를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지속될 경우(고탄소 시나리오, SSP5-8.5), 21세기 후반기가 되면 여름은 점점 길어져(97일→170일) 가을의 시작이 늦어지고, 겨울은 점점 짧아져(107일→39일) 아름다운 한반도의 사계절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날씨와 기후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며, 현재의 풍요로운 생활과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기상청은 기상과학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와 지식 확산을 위해 기상과학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을 시작으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전북 정읍시), 국립밀양기상과학관(경북 밀양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충북 충주시)을 순차적으로 개관하여 현재 총 4개의 기상과학관을 운영 중이며, 기상과학 역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국립기상박물관(서울 종로구)도 운영하고 있다.

기상과학관은 기상과 기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각 지역의 특색을 갖춘 다양한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먼저 대구기상과학관은 폭염이 심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은 열기구에 탑승하여, 대구가 더운 이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전북기상과학관은 기상과 함께 천문 통합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은 직접 천체 망원경으로 태양, 달, 행성 등을 관측하며 천문과 우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또한, 밀양기상과학관에서는 지진 관련 특별 전시실에서 지진의 원리와 현상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으며, 충주 기상과학관에서는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일기도를 직접 그려보며 오늘의 날씨예보를 만드는 기상예보관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대표 관측지점으로 1932년 준공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서울기상 관측소에 있는 기상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물 81점 등을 통해 기상관측의 역사부터 현대의 발전된 기상기술까지 우리나라 기상과학 문화의 역사와 우수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흥미롭고 유익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덕분에 기상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여기에서 나아가, 국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2023년에는 충남 내포 신도시 지역에 충남도청과 협업하여 과학관 역할에 서해안 연구 기능을 더한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설립하고, 전북 상 과학관 안에 기상과 기후 콘텐츠를 접목한 체험관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에는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 해양기상을 특화로 한 국립여수기상과학관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상과학관은 더욱 다채롭고 신선한 기상과학 콘텐츠로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과학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와
지식확산을 위해 기상과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백견불여일촉(百見不如一觸)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느껴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색으로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의 오감을 넉넉히 채워줄 기상과학관에 방문해 보자.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간과하면 안될 것 중의 하나가 습도이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3,130건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16명, 부상자 수는 291,608명이었다. 이 중 차량 단독 사고와 차대차(충돌·추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1,93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6.5%에 이른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운전자의 과실? 차량 정비의 미흡? 많은 교통량?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간과하면 안 될 것 중 하나는 습도이다. 습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습도는 도로 상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기분에도 큰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이다. 기상요소와 교통사망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영남(2007), 한국경찰연구)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가 계절별 습도 변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고 한다. 단순 사고 발생률은 습도 50~70%일 때가 가장 높았지만, 일별 사망률은 90% 이상인 날에 가장 높았고, 50% 미만일 때 가장 낮았다고 한다. 계절별로는 특히 가을에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습도가 높아지는 원인인 안개와 강수·강설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2년 전 서해대교 인근에서 안개로 인해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여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처럼, 안개가 낀 도로는 가시거리가 짧아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강수나 강설이 있으면 도로는 미끄러워지고 차량의 제동거리가 길어져 다른 차들과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온이 갑자기 하강하면서 비나 눈이 도로 위에 얇은 빙판을 형성하는 도로살얼음은 겨울철 대형사고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3년 전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여 4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이 바로 도로살얼음이었다.

교통사고 원인별 치사율을 살펴보면, 젖어 있거나 눈이 쌓인 도로에서의 사고는 평상시 도로 위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2.9배나 높았고, 안개가 낀 장소에서의 사고는 맑은 날 대비 4.5배 높았다. 특히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도로의 노면 상태와 기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노면 상태와 기상 상태를 정밀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면서 관측할 수 있는 기상관측차량과 지상관측장비로 구성된 도로기상관측망이 필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작년 겨울철 각 지방 기상청에 배치된 기상관측차량으로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기상 시범관측을 수행하였다. 차량 외부에 기압, 기온, 습도 및 도로노면 온도를 관측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해 이동하면서 관측을 실시하여, 교량 터널 입출구 부근, 지형에 의한 상시 그늘 구간 등 도로 노면 온도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결빙될 수 있는 취약 구간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로기상 관측을 통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의 노면관측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유관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좀 더 정확한 위험 구간 설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상청은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26개 고속도로에 기본관측소와 거점관측소를 각각 138개, 27개 지점에 설치하고, 안개 및 결빙 상습구간에는 시정계(113곳)와 노면센서(222곳)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기상관측망이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두 번째 안전벨트가 될 수 있기를

도로기상관측망이 구축되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안개 등 기상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상당수 예방될 것으로 생각된다.

도로기상관측망이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두 번째 안전벨트가 될 수 있도록 기상청은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운전자들이 어떠한 기상상황에서도 걱정 없이 도로위를 안전하게 달릴 날을 기대해 본다.



“

이른 열대야에 강한 국지성 호우도 잦아
짧은 시간 구름 발달해 좁은 지역에 쏟아져
위험기상 해당지역 알리는 날씨알리미앱 운영
기상정보가 생명과 재산보호 막중한 사명

대전지방기상청장
박영연

"올여름 한 시간에 100mm 이상 쏟아지는 폭우가 두 차례 관측됐습니다. 여름철 강수 특성이 달라졌고, 기상정보가 위험기상 지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할 때입니다."

박영연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올여름 우리지역에서 목격된 국지성 폭우와 6월 열대야를 관측하는 동안 새삼 기후변화를 실감했다.

좀처럼 관측되지 않았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우가 지역에서 두 차례 발생하고, 6월 열대야가 보령과 부여에서도 처음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 청장은 "올 여름 전체 강수량은 824mm로 평년과 비슷했으나 장마철 이후부터 8월 말까지 내린 비가 493mm로 전체 강수량의 59.8%를 차지할 정도 장마철 이후 많은

비가 내렸다"라며 "평년보다 비가 많이 왔음에도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은 24.8도로 평년 24.1도보다 높았고,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 기온은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지난 여름철 기상 특성을 설명했다.

대전지방기상청의 관측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 폭염일수는 10.8일로 평년(9.8일)과 비슷했으나, 열대야일수는 12.5일로 평년보다 6.5일 더 길었다. 보령과 부여에서는 기상 관측이래 6월 첫 열대야가 관측되기도 했다.

특히, 6월 29일 서산에 1시간 최대 105.4mm 비가 내리고, 8월 14일 새벽 부여에서는 1시간 최대 110.6mm 쏟아진 폭우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지역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현상으로 풀이됐다.

박 청장은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한 번에 쏟아지는 비의 양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으로 당시 폭우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라며 "좁은 지역에서 강한 구름이 갑자기 발달하는 특성을 보이고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름 날씨가 전과 달라졌음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기상청은 충청권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를 빠르게 관측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의 북격렬비도에 서해 종합기상관측기지를 운영 중이다.

서해상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강수계를 가장 먼저 탐지하는 곳이다.

관측된 기상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날씨알리미 앱을 운영 중으로 해당 지역에 위험기상이 나타나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위성사진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날씨알리미 앱 예시)

박영연 청장은

"기상청 직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유용한 기후예측 정보 생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기상청이 기상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날씨알리미 앱을 주민들께서도 휴대폰에 설치해 위험기상 정보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8. 31. ~ 9. 2.

대전지방기상청 「제18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현장지원」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8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행사에 기상관측차량을 전시·홍보하고, 실시간 기상관측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소방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언론인들까지 기상관측차량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상청 업무 홍보 등 대국민 소통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2022. 9. 6.

대전지방기상청 추석 명절 위문 활동

대전지방기상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대전시 소재의, 일반주택에 모여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 그간 코로나19로 시설방문이 어려워, 2년만에 방문하게 되어 좀 더 의미 있는 만남이었으며,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뜻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 방문이 우리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가 되길 바란다.

2022. 9. 15.

2022년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 운영 결과 보고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 연구개발특구 협업 프로그램인 주니어 닥터와 연계하여 2022년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올해는 비대면과 대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동시에 운영하였으며, 전국 1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여 기상·기후과학에 관해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인원의 82%가 '만족'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전국의 기상·기후 과학 꿈나무 양성에 이바지하였다.



2022. 9. 16.

「기상사진 우주 전시홀」 관람 홍보



대전지방기상청은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Spatial을 활용한 「기상사진 우주 전시홀」의 관람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이벤트는 대전(청)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기상·기후 사진 관람 후 인증사진을 제출한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이벤트 참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례를 한 가지씩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후행동 실천의장으로 조성하였다.

2022. 9. 21. ~ 10. 21.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보강(교체 및 확충) 사업

대전지방기상청은 2022년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을 진행하였다. 관할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 중 ASOS 1지점, AWS 9지점, 시정계 5지점, 운고·운량계 2지점을 신규 장비로 교체하였으며, 레이저 적설계를 8지점에 신규 설치하였다. 노후화된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겨울철 방재기간을 대비하여 적설계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관측자료 확보로 겨울철 예·특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9. 26.

지역 기상기후산업 이해관계자 소통공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서비스 UP!」 밴드 운영

The screenshot shows a social media band interface with a teal header containing navigation tabs: '계시글', '사진첩', '일정', '첨부', and '멤버'.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ree posts from the user '임영욱(대전지방기상청)'. The first post, dated 2022년 11월 8일 오전 9:59, discusses the '충남관광 활성화' project and the '충남관광 100선 맞춤형 관광 기상 종합 서비스'. The second post, dated 2022년 11월 2일 오전 10:07, is a notice for a '23년도 상반기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수요처 모집 공고'. The third post, dated 2022년 11월 1일 오전 9:56, is partially visible. On the right side, there are sections for '채팅', '파일', and '최근 사진'.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DROM' logo with a stylized landscape illustration.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서비스 UP!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김정수입니다. 기상기후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유와 관계기관 및 예비창업자 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밴드를 개설하였... 더보기

글쓰기

누구나 밴드를 검색으로 찾아 밴드 소개를 볼 수 있지만, 게시글은 멤버만 볼 수 있습니다.

밴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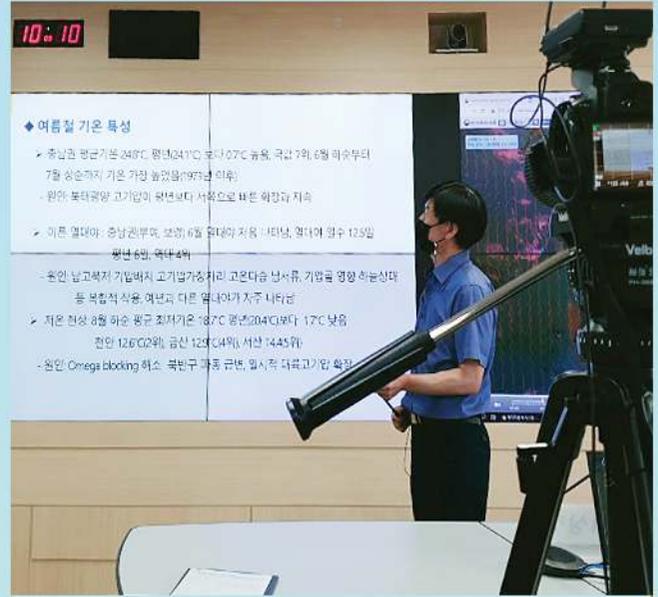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기상기후산업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서비스 UP!」 밴드를 9월 26일부터 운영하였다. 이번 소통방은 지역 기상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간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 발굴부터 기상기후서비스까지 원스톱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실무담당자 간 활발한 소통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상기후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9.27.

2022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성과환류 워크숍 및 정보사용자협의회(3차)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올해 진행 중인 ‘충남관광 100선 맞춤형 관광기상융합서비스 개발’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성과환류 워크숍 및 정보사용자협의회를 9월 27일 개최하였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수요기관,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여행작가를 초청하여 관광 분야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관광 정책에 대해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9. 29.

「2022년 위험기상 대응(여름철 특성 분석)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9월 29일 「2022년 위험기상 대응(여름철 특성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찬귀 기상전문관은 2022년 여름철 기온, 강수 등의 특성과 집중호우 사례를 분석하여 2022년 여름철 기상특성 분석 내용을 예보과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그간 쌓아온 기상전문관의 노하우가 예보관들에게 전달되어 충남권 예보 전문성이 높아지고 여름철 기상재해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9. 30.

이동식 자동기상관측장비(AWS) 활용 교육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기상관측 및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측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관측자료 분석 기법 등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9월 30일에 이동식 AWS를 이용한 관측방법과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설치방법, 관측자료 수신 설정법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이동형 관측장비의 적재적소 활용으로 현장 중심의 가치 있는 기상관측자료 생산에 이바지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10. 12.

2022년도 하반기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합동 점검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호우, 황사 등 위험기상을 신속하게 감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서해 최서단 북격렬비도에 지상, 고층관측 등을 수행하는 서해종합 기상관측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서해기지의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대전(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자와 관측장비 및 시설관련자 등 20명이 입도하여 관측장비, 자가발전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하반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23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 협의를 통해 서해기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2022. 10. 14. / 10. 17. ~ 18.
진로체험 홍보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오늘 하늘은 맑음, 내 손안의 VR 기상예보관」이라는 주제로 「제8회 청소년 나Be 한마당」, 「행복공주 진로박람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VR체험키트 만들기과 기상현상 가상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를 참여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기상청의 역할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2. 10. 18.
2022년 제2회 기상가족 건강지킴이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10월 18일에 제2회 ‘기상가족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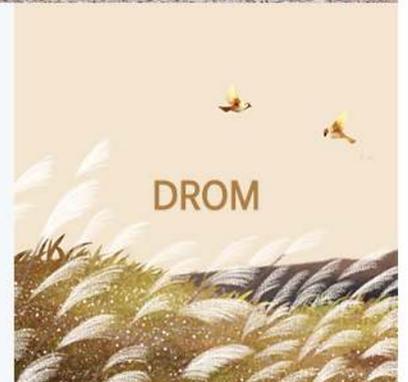
총 20명 가량의 직원이 신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등 체격을 검사하고,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6가지 종목을 통해 근력, 심폐지구력 등 체력을 측정하였다. 체력 측정 결과, 3명의 직원이 1등급, 1명의 직원이 2등급, 5명의 직원이 3등급으로 인증 받았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계속해서 직원들이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2022. 10. 18. ~ 31.

2022년 가을 유명산 단풍 시작 및 절정 계절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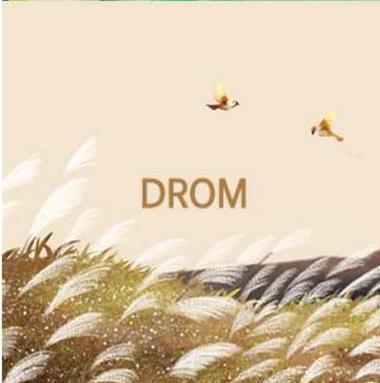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계룡산을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명산으로 지정하여 단풍 시작과 절정 계절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단풍나무 근경은 계룡산 동학사 자연관찰로의 시작 지점에 있는 단풍나무 세 그루를 중심으로 관측하며, 전체적인 환경은 동학사에서 쌀개봉을 바라본 전경을 관측한다. 올해 계룡산 단풍 시작은 10월 18일, 절정은 10월 31일에 관측되었으며 개화와 절정 모두 작년보다 7일 빠르게 관측되었다. 유명산 단풍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 10. 19. ~ 11. 3.

충남 서해 연안 해상활동 안전 강화 업무협약 기관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민의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예보·방재 해양기상 업무의 관계기관 지원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계기관이 요청한 제도 개선, 교육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요청사항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충청남도청 해양수산국, 수협중앙회 태안·보령 어선안전조업국



2022. 10. 24.

「대덕 어르신 재해 예방 협의회」 발족

대전지방기상청은 10월 24일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하여 대덕 어르신 재해 예방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양 기관은 애플리케이션 등 기상정보 전달 매체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기상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올겨울부터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위험기상 사전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설·한파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재해취약계층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10. 25.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물 추진 현황 점검 및 중간보고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2023년 개관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물 구축사업을 점검하였다. 2021년부터 제작·설치를 시작한 내부 전시사업의 완료를 위해 9월 15일에 현장에서 설치현황을 점검하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야외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사업의 설계 방향과 추진계획 점검을 위해 10월 25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하고 유익한 기상과학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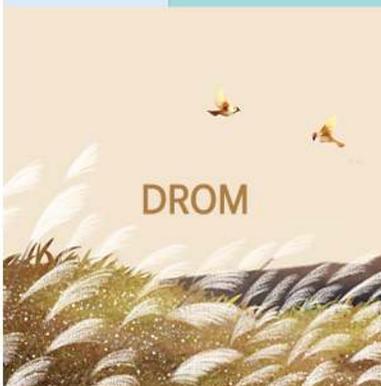
2022. 10. 25.

지자체·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01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검토

-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관련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대전지방기상청 지원 대상 지자체: 총 23개 기관(광역 3, 기초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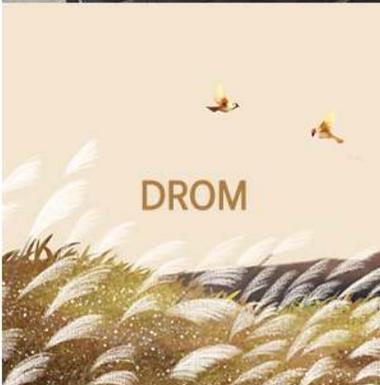
광역지자체(3)	기초지자체(20)	기관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5
충청남도청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15
세종특별자치시	-	-
		23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지침(환경부, 2022.5.30.)
 - 제1장 총칙
 - 제2장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 제3장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 제4장 대책 수립·이행평가 관련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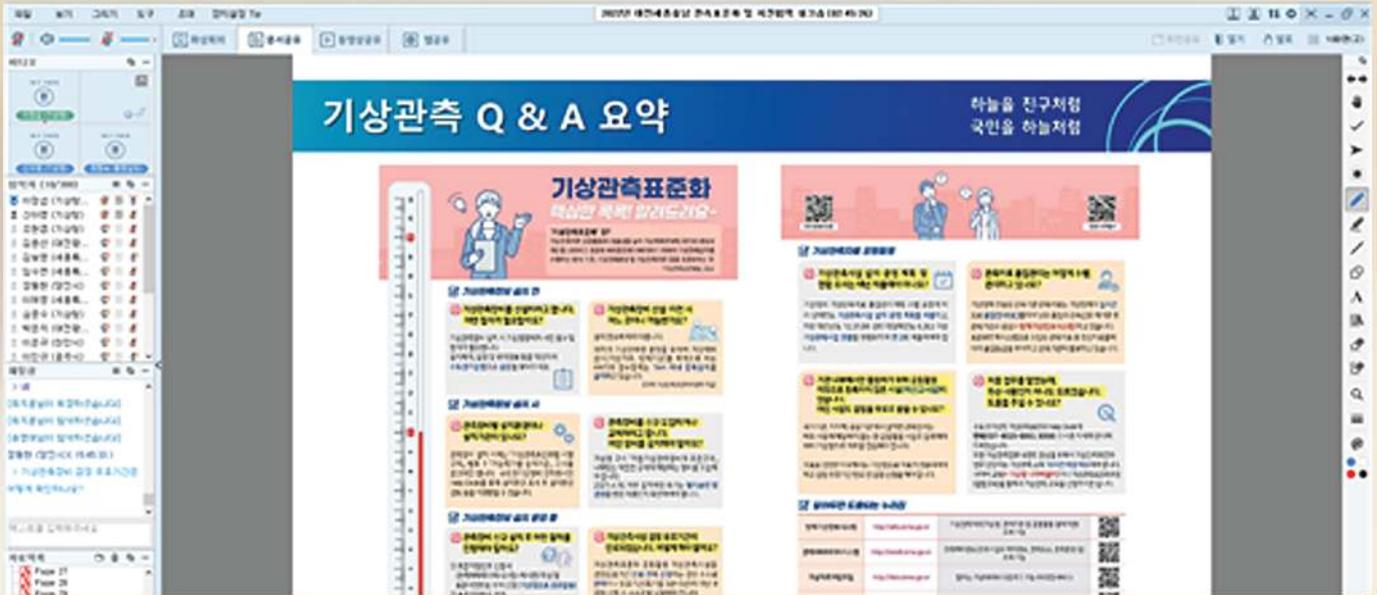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와 용역수행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원사례를 소개하고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예측서비스와 대전·세종·충남 SSP 시나리오 전망에 대해 주로 설명하면서 진행하였다. 좀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실무자 대상 기후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타 기관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2022. 10. 26.

인공지능(AI)기반 충남지역 대설 예측기술개발 하반기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2021년부터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과와 협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대설 예측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지역 강설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양기관의 보유 기술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 26일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인공지능 초단기 강수예측 모형 운영과 검증, 아산만 효과에 의한 충청내륙 강설 특징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등에 대한 기술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번 협업 연구는 충남권 대설예보 정확도 향상과 미래기상업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10. 26.
충남권 기상관측표준화 및 지진대응 협력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10월 26일 충남권 유관기관 방재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상관측표준화와 지진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협업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유관기관 담당자들은 지진정보 연계서비스, 기상관측 시설의 활용, 관측메타데이터 시스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담당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면서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2. 10. 26.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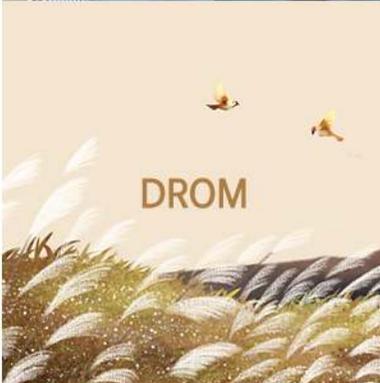
「8월 13~14일 부여, 청양 집중호우 상세 분석을 위한」차령산맥 현장 답사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8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 충남 부여와 청양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충남 서해안에 위치한 오서산과 그 주변 지형을 분석하여 여름철 남서풍이 충남내륙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정성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번 답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향후 여름철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2022. 10. 28.

2022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최종보고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10월 28일, '충남관광 100선 맞춤형 관광기상융합서비스 개발'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서비스는 충남 관광지 100곳의 관광-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지를 추천해 준다. 또한 해시태그를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관광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11월 말 충남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충남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4-41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11. 8. ~ 11. 16.

찾아가는 한파 영향예보 설명회 추진



2022년 겨울철을 맞아 한파 영향예보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취약계층의 위험기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찾아가는 한파 영향예보 설명회'를 추진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지원을 해주는 방문관리사와 야외근로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주시 보건소, 천안 고용노동지청 등 6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얻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영향예보 전달 방안을 발굴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2022. 9. ~ 11.

2022년 리버스 멘토링

대전지방기상청은 각 부서 MZ세대 직원이 멘토가 되어, 멘티(대전지방기상청장)를 지도하는 리버스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 멤버들은 아이디어와 협동심을 요하는 방탈출 게임,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퍼스널 컬러 진단, 신조어 퀴즈 풀기와 보드게임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9. ~ 11.

부서장과 「함께해You, 취미」

대전지방기상청은 부서장 취미 공유 프로그램인 「함께해You, 취미」를 4차례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들은 각자의 취미인 커피 핸드드립, 캠핑과 골프, 여행과 탁구, 테니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미를 소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직접 취미활동을 해보는 시간도 가짐으로써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 마지막인 4차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2. 11. 9.

겨울철 위험기상 대비 관측과-홍성기상대 합동 관측기술 세미나



대전지방기상청은 겨울철 방재기간('22.11.15.~'23.3.15.)에 대비하여 적설 관측기술 공유 및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관측과-홍성기상대 간 합동 관측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적설 관측 주관점과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강설 특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청)은 적설에 대한 신뢰성 있는 관측과 기상청·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특보와 기상정보 생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 11. 10.

표준교재 - 예보에센스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체계적인 예보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특화 표준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11월 10일에는 표준교재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간 제작한 호우, 풍랑, 대설 분야별 최종 교재를 발표하고 동영상 교재 촬영을 위한 강의 방향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표준교재의 주 교육대상인 우리 지역 신규 예보관들의 눈높이에 맞춰 분야별 예보기초이론과 우리 지역 특화 예보 판단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교재 난이도를 조정하며 효율적인 예보기술 전수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11. 11. ~ 14.

서해안 위험기상 예측기술 향상을 위한 기상관측차량 특별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맞춤형 특보 운영을 위해 충남 태안 기지포 탐방지원센터에서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특별관측을 수행하였다. 이번 특별관측에서는 지형 및 환경에 의해 생기는 국지 관측값과 특보 검증 관측지점의 관측값 차이를 파악하였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기상특보 운영방안의 수립을 위한 관측자료로 활용하여 예보관의 특보 판단 용이성 확대와 위험기상 대응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11. 16.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

대전지방기상청은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기 전,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와 연계하여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대전시 대덕구 일대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 2가구를 방문하여, 연탄 600장과 쌀, 과일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계속해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2. 11. 17., 11. 22.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대전지방기상청은 올바르고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슴압박소생술(Hands Only 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에 대해 배우고, 배운 것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대전지방기상청은 내년에도 위기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022년도 가을철 계절관측

코스모스



개화

- 9월 5일
- 작년대비 6일 빠름
- 평년대비 3일 늦음



만발

- 9월 22일
- 작년대비 4일 늦음

유명산 단풍(계룡산)



시작

- 10월 18일
- 작년대비 7일 빠름
- 평년대비 2일 늦음



절정

- 10월 31일
- 작년대비 7일 빠름
- 평년대비 4일 늦음

첫 서리



- 10월 19일
- 작년대비 1일 늦음
- 평년대비 9일 빠름

첫 얼음



- 11월 4일
- 작년대비 19일 빠름
- 평년대비 1일 늦음

첫 눈



- 11월 30일
- 작년대비 8일 늦음
- 평년대비 10일 늦음

* 은행나무: 시작 10월 23일(작년대비 9일 빠름, 평년과 같음) / 절정 10월 29일(작년대비 11일 빠름, 평년대비 3일 빠름)

* 단풍나무: 시작 10월 19일(작년대비 7일 빠름, 평년대비 4일 늦음) / 절정 11월 10일(작년대비 1일 빠름, 평년대비 7일 늦음)

9

2022
September

9. 5.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홍성: 3위 77.5mm, 세종: 4위 61.5mm
9. 6.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72.2mm, 홍성: 5위 38.7mm
10분 최다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세종: 3위 8.7mm
9. 16.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홍성: 2위 31.2℃
9. 17.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대전: 5위 33.0℃, 홍성: 5위 30.1℃, 세종: 1위 32.7℃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4위 23.0℃
9. 18.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대전: 2위 33.1℃, 세종: 2위 32.6℃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23.4℃

10

2022
October

10. 3.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서산: 1위 20.8℃, 보령: 2위 21.0℃, 홍성: 2위 20.0℃, 부여: 5위 19.3℃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서산: 4위 78.7mm, 보령: 1위 65.1mm, 홍성: 4위 52.1mm, 세종: 3위 24.0mm



10. 4.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천안: 5위 52.0mm, 홍성: 3위 68.8mm, 세종: 2위 45.5mm
- 1시간 최다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대전: 5위 18.3mm, 천안: 2위 25.3mm, 금산: 5위 12.7mm, 홍성: 1위 36.6mm
 세종: 1위 24.7mm
10. 9.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세종 4위 22.3mm

11

2022
 November

11. 11.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2위 22.0℃, 홍성: 3위 22.2℃
11. 12.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대전: 2위 25.3℃, 보령: 4위 24.4℃, 부여: 4위 24.1℃, 홍성: 1위 23.1℃, 세종: 1위 24.3℃
-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5위 9.8℃
-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서산: 4위 56.0mm, 홍성: 5위 33.7mm

※ 홍성: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2. 11.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세종(239)

2. AWS(40소)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계룡(636), 계룡산(659),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논산(615), 연무(644), 당진(616), 신평(637) 호도(578), 삽시도(609), 대천항(657), 외연도(669), 양화(635), 대산(606), 서천(614), 춘장대(646) 아산(634), 송악(493), 예산(628), 원효봉(694), 성거(617), 창양(618), 경산(691), 근흥(607), 민리포(658) 북격렬비도(229), 태안(627), 안도(666), 옹도(667), 흥북(608), 흥성죽도(610), 서부(645)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